

需給均衡개지면 國際的으로 波及

= 消費減退說에 悲觀, 樂觀의 面論 =

美國의 穀物植付制限措置의 影響

카 - 너美大統領은 지난 8月下旬 穀物の 在庫增大와 이에 따른 時勢下落을 打開하기위해 小麦의 20%植付制限措置를 決定 発表했는데 이 小麦등 穀物の 減反政策에 依해 美國의 肥料需要(消費)에 어떠한 影響을 미칠것인지 肥料供給國들의 關心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美國의 小麦등 穀物の 植付制限에 對해서는 世界的인 穀物の 需給緩和, 在庫의 增大에 依해 國際時勢도 下落, 特히 世界의 “빵箱子”로 불리우는 美國의 過剩在庫에 따라 어쩔수 없이 表面화된것으로도 指摘되고 있다. 이 小麦등 穀物の 植付制限내지 減反措置가 美國의 來年度春肥들 中心으로한 肥料의 需要에 어떻게 作用할 것인지? 이 點에 對해서는 아직 무어라 말할수 없으나 現段階에서는 悲觀, 樂觀의 두가지 見解가 있다. 즉 前者는 耕作面積이 주는 以上, 農家의 肥料消費도 준다. 後者는 植付가 制限되더라도 農民은 그 以外의 既耕作에 肥料를 增投, 生産을 높이려고 함으로 줄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또 이러한 兩論의 한쪽에서는 蓋然的, 心理的으로 「耕作面積의 減少~消費의 減少」라고 하는 形態에서 肥料의 需給要는 역시 減退하는것은 틀림없으며 이점 앞으로의 美國의 肥料動向은 注意를 要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美國의 메이커-들은 植付制限問題에 全然 關心을 기우리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오히려 밝은 期待를 걸고 있는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데 그 裏面에서는 美肥料業界가 올봄以來 異常寒波에 依한 悲觀論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好況무-드”에 놓여있는 事實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듯 하다.

어쨌든 美國의 小麥의 20% 植付制限措置가 肥料에 어떠한 影響을 미칠것인가는 同國의 需給規模가 巨大한만치 그 均衡이 崩壞될 경우 國際的으로 크게 波及될것만은 틀림없는 事實임으로 肥料供給國들의 立場에서는 앞으로의 歸趨에 關心을 기우리지 않을 수 없는 問題인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肥料會議開幕

엘살바돌의 首都 산살마돌에서 5日부터 開催된 第3回 라틴아메리카肥料會議는 8日(現地時間)를 끝내 내렸다. 中南美各國을 비롯하여 先進諸國에서 關係者들이 參加한 同會議에서는 最近의 國際肥料情勢와 中南美肥料의 流通円滑化問題를 論議했다 한다.

스 MMTC 總裁 9月下旬 訪日

印度 鐵產品貿易公團(MMTC) 總裁인 스와미나산氏가 9月下旬, 日本을 訪問할 것이라 한다.

스總裁의 訪日目的은 鐵鋼 商談에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肥料業界와의 接觸도 있을것으로 보인다 日本의 한 業係通信이 報道했다.